

오늘의 大學과 人文科學

金 烈 圭

(西江大 國語國文學科 教授)

오늘날 한국의 대학에서는 人間的 知的 始發이요 終局이라는 데서 확보 될 人文科學性이 흔들리고 있다. 人文科學은 다만 語學教育이나 말고, 敎養必須로서의 道具科目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짙어가고 있으며, 「人間 안」에 관한 물음에 충실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人間知識만을 주로 추구하고 있다.

1. 人文科學과 人間 그 自體

人文科學은 직접 「人間 그 자체」를 문제 삼는다. 이 말은 人間을 文化에서 떼어내어 分子化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거나, 社會에서 유리시켜 추상화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같은 脈絡에서의 단절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혹 가능하다고 해도 人間을 규명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人間 그 자체(Human *per se*)란 말은 분명히 文化라는 맥락 혹은 社會라는 맥락에 人間을 거기 들어앉히면 人間の 本性이 남김없이 알알이 드러나게 할 현미경 같은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示唆한다. 社會라는 혹은 文化라는 맥락에 우선권을 주고 그것들의 종속적인 함수로서 人間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社會와 文化가 人間 그 自體를 照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要素란 것을 人文科學은 否認하지 않는다. 사실 人間은 이미 世界內 存在이기 때문이다. 人間은 文化를 살고 있는 人間이다. 文化하면서 人間은 살고 있다. 그렇듯이 人間은 社會化하면서 살고 있다. 文化化하고 社會化하는 일 그 자체가 人生이다.

그러나 “人間이 文化化한다” 혹은 “사람이 社會化한다”는 그 문장에서 行爲하는 主體는 人間이다. 이처럼 文化化하고 社會化하고 있는 能動體, 積極的 主體로서의 人間이 人文科學의 종극적인, 아울러 根本的인 물음의 대상이 된다. 社會와 文化 쪽에서 人間을 묻지 않는다. 人文科學은 社會와 文化를 창조하는 主體로서의 人間 쪽에서 人間에게 물음을 제기한다.

哲學, 文學, 言語學 그리고 宗教學 등이 人文科學의 古典的인 영역이다. 이 경우, 哲學이며 文學, 言語 그리고 宗教 등이 人間文化임은 틀림없다. 그런 뜻에서 人文科學은 人間 그 自體를 물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은 이치에 닿지 않

는 듯이 보인다. 경제며 사회, 정치 등이 人間文化로서 사회과학의 물음이 될 때, 社會科學이 人間 그 자체에 직접 물음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듯이, 文學作品, 言語, 믿음, 그리고 哲學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人文科學 역시 人間 그 자체를 직접 문제 삼고 있지 않은 듯이 보인다.

社會科學과 人文科學은 다만 연구 영역이 다른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人間이 낳은 文化를 직접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듯이 보일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과학이 자연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음에 비해서 人文科學과 社會科學은 人間이 낳은 文化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공통의 특색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言語며 文學, 그리고 믿음이며 哲學이 비록 文化라고는 해도, 그리하여 그 文化들이 人文科學의 연구 대상을 이루고 있음이 사실이라고 해도, 文學과 言語學과 哲學과 宗敎學이 구체적인 존재로서의 특정한 人間個體 혹은 抽象으로서의 人間個體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에 留意해야 한다. 哲學이 思索하는 人間을, 文學이 한 作家를, 言語學이 언어를 쓰고 있는 인간을, 그리고 종교학이 믿음을 품은 어느 사람을 물음의 前面에 앞힐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이같은 人間個體에 대한 물음과의 관련지음이 없이는, 文化로서의 文學, 言語, 믿음, 哲學에 대한 물음은 온전하게 제기될 수가 없다. 이 점에서 人文科學의 특색이 확인될 것이다. 가령 俳句와 랑그의 데립이 前提될 때, 쓰일 言語學 이후, 연구의 주된 대상이 보편적 體系로서의 랑그에 기울어져 있고 따라서 言語研究의 實際에 있어 人間 個我가 그만큼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랑그는 필경 再構된 抽象의 體系이다. 그것은 개개인의 俳句를 통해서 실천된다. 우리들 연구의 대상으로서는 俳句를 쓰는 무수한 個人이 훨씬 더 직접적이다. 랑그는 이미 企劃된 테두리 속의 言語이다. 言語學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人文科學 분야와는 달리, 哲學은 그 자체의 고유한 영역이 없다. 대상은 있어도 영역이 없는 것이 哲學이란 학문의

특색이다. 그러나, 이 영역의 결여가 철학의 결함이나 소극성을 말해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哲學으로 하여금 학문의 학문으로서 일종의 「메타性」을 지니게 해 주기 때문이다. 한 人間이 어떻게 그 存在性을 확보하며, 어떻게 思考하고 認知하고 行爲하는가 하는 물음과 함께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의 正當性은 무엇으로 檢證되는가 하는 것이 哲學의 물음이기 때문이다. 哲學은 학문 그 自體의 궁극적인 담당자인 人間個體의 自己省察과 무관하지 않다. 사실 哲學이 지닌 이같은 「메타性」은 人文科學이 學問一般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며 구실에 대한 示唆가 될 수 있다.

II. 人間 안

人文科學은 무엇보다도 「人間 안」에 대한 물음 위에 성립되어 있고 文化를 연구할 때에 있어서도 「人間 안」에서의 視角을 고수한다. 그러므로 人文科學에는 「學問하는 人間」 내지 「知的 人間」들을 위한 궁극적인 물음이 걸려 있다. 人間은 스스로 그 안에 갖고 있는 것만큼 세계를 구축하고 세계를 이해한다. 세계 인식도 宇宙 인식도 필경, 人間들 自己 인식의 아날로지를 넘어설 수가 없다. 이 人間의 知的 宿命을 생각할 때, 人間을 안에서 되묻는 人文科學이 人間的 知的 증극이란 것이 분명해진다.

하지만 人文科學은 人間的 知的 증극이면서 아울러 人間的 知, 「科學하는 人間」의 시작이 된다. 人間들의 바깥의 연관이며 활동이 물음의 最前線에 자리잡는 社會科學의 경우에도 바깥을 향한 연관의 매듭이요 동시에 바깥을 향한 움직임인 人間의 안에 관한 물음 없이 그들 고유한 최전선의 물음을 처리할 수가 없을 것이다. 自然科學의 경우에도, 人間의인 知的 體系에 그 知的 確證과 檢證 등에 관한 물음이 없을 수 없기에 人間 안에 대한 물음을 외면할 수 없게 된다. 人間 안에 대한 물음과 짝지워지지 않는 人間 바깥의 어떠한 물음도 필경 無效이다. 自然科學이 物質의 個體와 世界의 한 조각에 관한 지식을 넘어서서 총체적 세계상을 定立하고자 할 때, 그 세계를 관찰하면서 세계상을 엮어 가는

것이 누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世界의 構造, 世界의 像이 미리 바깥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人間에 의해 구축되어 世界는 비로소 그 像을 具現한다.

오늘날, 한국의 大學에서 人文科學의 이같은 終局性과 始發性이 충분히 인식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설혹 인식되었다고 해도 그 인식이 실천에 옮겨져 있는 것 같지 않다. 人文科學은 날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中世紀 이래로 大學의 基本學科였던 궁지도 덩달아 소실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이 人間의 世紀가 아니라고 해서 덜어 들 일이 아니다. 人間의 世紀가 아닐수록 人文科學, 곧 人間에 관한 물음은 더욱 치열해야 할 것이다.

志願學生이 즐고, 따라서 質 또한 向上되어 가거나 現狀維持를 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 것 같다. 施設이 기울어 가고 人的 資源 또한 충족하지 못하다. 게다가 人文科學이 스스로 그 人文科學性을 내 버리고 있다는 느낌마저 없지 않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人間의 知的 終局이요 始發이라는 데서 확보될 人文科學이 흔들리고 있는 느낌이다. 語學 교육이나 말교 敎養必須로서 몇 가지 概論이나 設定해 놓고 스스로 道具學科로 떨어지는 傾向이 짙어 가고 있다. 설사 道具化하지 않는다고 해도 人文科學이 「人間 안」에 관한 물음에 충실하지 못하고 物質의 이고도 斷片的인 人間知識만을 주로 추구하고 있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

社會科學이 지닌 現實의 效用성과 쉽게 타협하거나 아니면 그 現實性을 外面한다는 名分 아래서 스스로 폐쇄성과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精神科學으로서의 영광은 어젯날의 追憶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Ⅲ. 오늘의 問題點

사실 近代의인 한국 人文科學의 역사는 매우 짧다. 그러나, 中世紀 儒學의 전통을 우리는 지니고 있다. 그만큼 긴 人文科學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한국의 社會科學이나 自然科學은 人文科學에 훨씬 미치지 못할 곳에 뒤쳐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學問的 堆積의 量만큼 이 땅의 人文科學이 한국인의 「人間의 안」을 극명하게 규명해 낸 것 같지 않다. 한국인의 「人間의 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땅 人文科學의 死活의 문제이다.

하지만 여태까지도 通時的인 견지에서나 共時的인 견지에서나 한국인의 「人間의 안」이 浮刻된 것 같지 않다. 이것은 人文科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社會科學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社會科學이 스스로 설정한 어떤 모델에 의해 이 땅 文化며 社會 현상을 규명하고자 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장애에 부딪혔을 때, 부득이 한국인의 「人間 안」을 묻게 된다고 해도 人文科學은 그것에 대한 해답은 물론이고 接近方法조차 안 갖고 있다는 실정이 노출될 위험성이 짙다. 사회제도며 정치제도가 필경 人間의 內的인 오리엔테이션, 곧 의식의 기구나 그 지향성의 객관화라는 명제가 존중된 나머지 社會科學이 人文科學에 學際間的인 협력을 구해 왔을 때, 한국 人文科學은 아직도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땅의 人文科學은 人間知的 중국으로서도 충분하지 못하고 始發點으로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의 人文科學이 自身の 고유한 과업에 철저하도록 충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學際間的 協力에 있어 道具性도 심분 발휘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게 된다. 人文科學의 역사의 길이에 비해 貧困 상태를 완전히는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社會科學에서 모델을 구하고 自然科學에서 이른바 科學性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 땅의 人文科學은 스스로 그 獨自性을 해치기도 했던 것이다. 古典의 해석에 있어서나 現代의 作品의 해석에 있어 社會科學의 모형이 주도권을 잡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本末의 전도다. 사실 近代의 人文科學은 社會科學과 自然科學에 못지 않게 自身이 지닌 精神科學으로서의 獨自性을 方法的으로 철저하게 가름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다는 것을, 이 경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以上에서 보아 온 重大한 문제에 수반되어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古典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들 古典의 전통에서 漢文典籍을 제외하

거나 소홀히 다루었을 때, 한국 人文科學은 그 빈곤성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人文科學의 兩大 對象이 人間과 古典이란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한글로 된 作品만이, 그것도 文學작품만이 古典 대접을 받았을 때, 한국 人文科學은 스스로의 목을 졸랐던 것이다.

이제 哲學, 歷史 등에 관한 漢文典籍이 漢文文學의 典籍와 함께 우리들의 古典으로서 정식으로 編入되어야 한다. 古典의 榮衰는 곧 人文科學의 영쇠이고, 나아가 오늘날 人間들 자체의 영쇠이다. 古典典籍의 體系的 再整理가 있고 난

연후에야 한국 人文科學은 그것이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그 시발점에서 되물을 수 있게 될 계기의 하나를 포착할 것이다.

人間이 무너지고 있는 世紀, 人間的인 것의 價値가 뒤로 물러서 있는 世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플수록, 우리들이 人間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命題는 더욱더 절실히 되는 것이다. 學問內의 명제나 과제에 앞서 이 人間世紀의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라도 오늘날 大學敎育에 있어서의 人文敎育은 反省,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